

### 부활절 여섯번째 / 어머니 주일 예배

#### THE WORSHIP SERVICE OF THE 6<sup>TH</sup> SUNDAY OF EASTER

주후 2023년 5월 14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559 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통일30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98 번 아버지주일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에베소서 (Ephesians) 521-33</b>	조문희 집사
찬 양 Anthem	“이 가정 주인되신 예수께”	찬양대
설 교 Sermon	<b>“피차 복종하라” (Submit to One Another)</b>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밤이나 낮이나”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449 장 “예수 따라가며” (통일377)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너 낳은 아버지께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여,

오히려 부모님을 서운하게 해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과 돌봄을 받았지만,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고,

전혀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부끄럽게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신실하게 지켜내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 23:22,25, 엡 6:2)

####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개역개정 **엡5:33**)

“However, each one of you also must love his wife as he loves himself, and the wife must respect her husband.” (NIV **Ephesians 5:33**)

####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14 (주일)	5/15 (월)	5/16 (화)	5/17 (수)	5/18 (목)	5/19 (금)	5/20 (토)
	민23	민24	민25	민26	민27	민28	민29
본문	시64,65	시66,67	시68	시69	시70,71	시72	시73
	사13	사14	사15	사16	사17,18	사19,20	사21
	벧전1	벧전2	벧전3	벧전4	벧전5	벧후1	벧후2

#### 수/요/ 찬/양/집/회

####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5/17수 오후7:30)	“일곱 문장으로 읽는 신약”(4)-“은혜” (엡28-9)
토요 새벽기도회(5/20토 오전6:30)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119:33-40)

#### 지난 주일(5/7) 말씀 – 하나님의 가정(1)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에베소서 5:8-17)

이 세상에 정말 가치있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소홀하게 대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첫번째 사회제도이면서, (동시에) 첫번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이 소중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도,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를 제대로 모르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또 다른 우리의 실체 즉,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고 탄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저 탄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곤고한 중에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것은 1)첫째, 더 이상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고(엡5:11-12), 2)둘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이며, (마지막) 3)셋째,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 설/교/ 메/모